

#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현황과 향후 과제

김인호 |

신구대학교 환경조경과 교수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학사, 석사, 박사(공학박사)

신구대학신문원 원장 역임, 환경부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 심의 위원

[사]생명의숲 학교숲위원장, 서울숲사랑모임 운영본부장

tel. 031-740-1301 | kimih@shingu.ac.kr

##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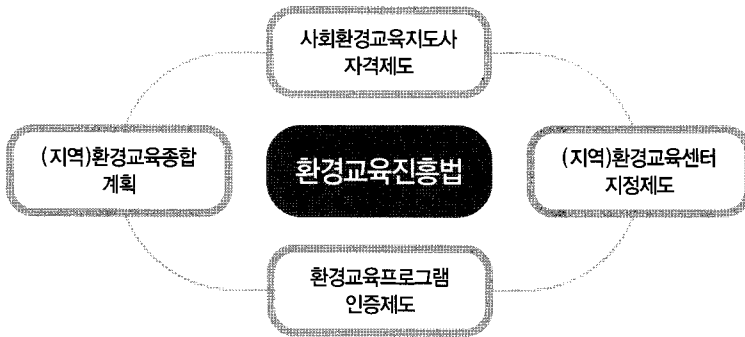
지구온난화 문제, 기후변화 시대 대응을 위해 환경교육도 변화가 필요하다. 기후변화, 저탄소 녹색성장과 같은 환경 현안을 환경교육이 어떻게 실천적인 해결 전략을 구축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되었다. 생태적 감수성에서 생태적 합리성과 생태적 지혜로, 체험중심의 환경교육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과 참여 중심의 환경교육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변화가 필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17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환경교육진흥법<sup>1)</sup>이 제정되어 2008년 3월 동 법률이 공포되었고, 시행령인 대통령령이 2008년 10월에 제정되었다. 환경교육진흥법에 의하면, 환경교육진흥위원회<sup>2)</sup>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sup>3)</sup>을 수립해야 하며, 특별·광역시장·도지사는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sup>4)</sup>. 또한,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을 부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공공성, 신뢰성, 적합성을 높이고, 환경교육 소비자-공급자간 올바른 정보교환을 통한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는 환경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참여하는 수요자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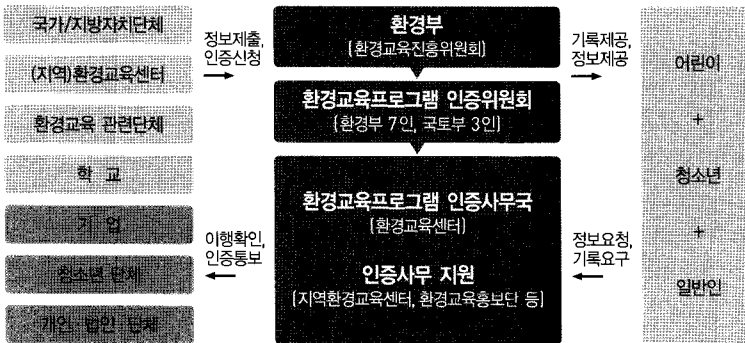
제1회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심사위원회가 2010년 9월 16일 개최되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환경교육프로그램이 10개 인증되었다. 4차에 걸친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을 통해 90개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인증을 받았다. 대회 20여개의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인증받은 셈이다. 90개 인증 받은 프로그램 중 중복기관은 11개소로 국립공원이 5개소, 자연학습원이 2개소로 다른 어떤 교육기관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역분포는 서울(20%), 경기(1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1) 환경교육진흥법은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둔다. 1.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심의, 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주관한다.  
3)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종합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최근 서울시를 이어 경상남도, 경기도, 충청남도, 경기도, 충청남도, 경기도, 제주도, 전라남도, 부산시, 경기도 등이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진흥하기 위한 광역치원의 환경교육지원 및 진흥조례를 제정하거나 제정 중에 있다.

〈 그림 1. 환경교육진흥법 주요 내용 〉



〈 그림 2.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운영체계 〉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은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접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초기보다 훨씬 일반인들은 물론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을 희망하는 단체나 기관, 개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것 또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제도가 활성화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우수 환경교육 인증프로그램 선정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2010년부터 인증된 90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우수프로그램은 선정, 시상하여 양질의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11년 11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표 1. 운영기관별 인증 현황 〉

기관구분	인증개수	백분율 (%)
공공기관(공기업, 협회 등)	15	17%
국립공원	27	30%
기업	9	10%
시민사회단체	28	31%
식물원	2	2%
아동복지시설	1	1%
정부소속기관	1	1%
지방자치기관	6	7%
기타(연구회)	1	1%
합 계(개)	90	100%

〈 표 2. 지역별 인증 현황 〉

지역구분	인증개수	백분율 (%)	지역구분	인증개수	백분율 (%)
서울	18	20%	충북	6	7%
부산	2	2%	충남	6	7%
대구	1	1%	전북	5	6%
인천	3	3%	전남	7	8%
광주	3	3%	경북	6	7%
대전	3	3%	경남	7	8%
울산	0	0%	제주	2	2%
경기	15	17%			
강원	6	7%	합 계(개)	90	100%

##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성과와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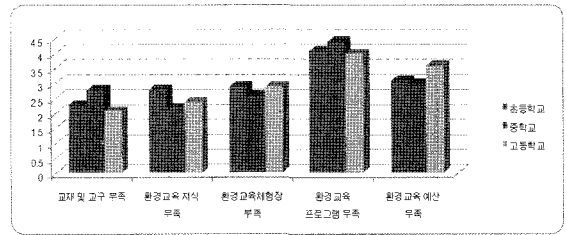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가 완벽한 제도로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범적용 과정을 거치면서 수정하고 보완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한 것은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연착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상황변화에 대한 진단과 모니터링에 기초하여 기준의 강화 또는 보완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 5차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2011년말에는 인증받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이 100개가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 4차 인증을 거치면서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은 환경보전협회의 사무국과 함께 32명의 1~2기 인증지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인증지원단은 지역에서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의 홍보역할과 함께 컨설팅을 통해 인증신청 전이나 신청된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인증문턱을 넘어 체계화를 모색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선지원 교육의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두고 있는 셈이다. 2번의 인증지원단 보수교육과 온라인에서의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의 지원역할의 수준과 내용을 공고히 하였다. 특히,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운영세칙을 수립하여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명시하지 않은 인증제와 관련된 다양한 세부 운영내용을 명문화하여 체계화한 것도 그동안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는 환경교육진흥법의 성공적인 성과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여러 기관과 단체가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의 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미있는 변화이다.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아직도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는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가 지속되고 사회적으로 가치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고민해야 할 측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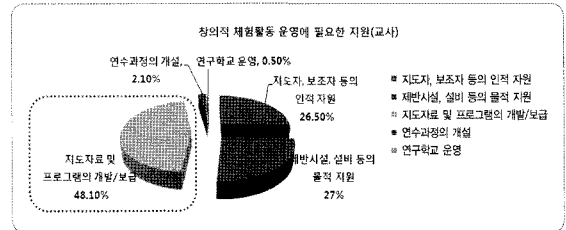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학교의 참여**이다. 학교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도의 확산에 중요한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연계성이 높지 않다. 학교, 특히 교사들의 인증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교사의 참여는 두가지 효과가 있다. 학교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적용되는 비율이 높은 프로그램의 인증

이라는 측면과 학교 밖에서 인증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높아 학교-사회 환경교육 연계성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창의와 배려의 조화를 통한 인재 육성 추진 방안인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 창의적 체험활동<sup>5)</sup>과 연계하여 운영되어야 활성화가 기대된다<sup>6)</sup>.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수요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기 때문이다.

〈 그림 3. 학교급별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환경교육의 적용에 대한 어려운 요인 〉



〈 그림 4.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인식(교사) 〉



인증 프로그램 영역과 내용의 다양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환경교육의 범위와 내용은 넓고 다양하다. 지금까지 인증받은 환경교육프로그램들은 생태교육, 체험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 인증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에너지문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생활환경과 관련된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제도 진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유형과 성격이 다양한 만큼 최대한 유연하게 평가하여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인정하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 프로그램은 활동의 집합이 아니다. 프로그램의 경쟁력은 참가자의 만족도와 프로그램이 의도한 목표의 달성이다. 초기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가 프로그램의 확실성 경직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차질 인증제라는 제도적 유형화를 통해 경직된 프로그램의 양산 우려는

불식되었지만 프로그램의 생명인 유연성과 변형 가능성을 막지 않고 환경교육의 전분야를 총괄하는 인증제도가 되도록 전체적인 틀(framework)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인증 수준(문턱)에 대한 보완과 수정이다. 현재는 초기단계로 문턱을 너무 높이지 않아서 많은 기관이나 단체가 인증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인증제도가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질관리가 중요한 목표이기는 하지만 너무 까다롭게 만들 경우 시스템이나 제도 자체의 안착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증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인증에 대한 품격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평가도 중요하다. 넘어야 할 문턱이 적절한지 자기검증체계가 작동될 필요가 있다.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 수준(문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3년의 인증유효기간 중 얼마나 인증된 환경교육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인증지원단의 책임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지역에서 현장에서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도의 홍보대사 역할 뿐만 아니라 인증받은 이후에 인증받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도 해야 한다. 인증지원단은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의 에너지원이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인적자원(humanware)이다. 인증지원단의 의견수렴은 인증제도의 평가절차라고도 할 수 있다. 인증지원단에 대한 지원과 상호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선진사례답사 연수 등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상호 신뢰와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는 자기생명력을 갖고 자기발전과 진화를 하고 있다. 현장적용과정을 통해 시행착오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다. 하지만 중장기 비전과 로드맵을 모색해야 한다. 1,000개의 인증프로그램을 자랑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가 5년만에 정체기를 맞이하고 있다. 얼마 안 있어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아직까지는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사회적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다른 분야와의 복용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도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인증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하는 연구를 통해 정부의 예산투자 대비 중장기 효과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비교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기평가와 함께 집단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2011년 11월에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시상하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장관상에 상금도 있다. 인증제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기관과 운영하는 운영자를 칭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인증을 받은 기관이나 개인에 대하여 좀 더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보완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변화를 해야한다. 제도는 군림(君臨)하고 통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5) 교육과학기술부는 '09 개정 교과과정에 본격 도입되는 초·중등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창의성과 인성의 세부 요소별, 학생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체험이 가능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개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과 더불어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핵심활동이 되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과정의 제시한 시수 동안의 활동이 아니라, 학교안밖의 다양한 장소에서 주말·방학 등 다양한 시간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교과 활동외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교과과정상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주당 3·4시간)는 체험활동을 실제 하거나, 체험 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체험 활동 결과 평가·분석 등 시간으로 활용한다.  
6) 학교생활기록부에 동아리, 독서,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기록하여 학생들의 포트폴리오 관리를 강화하고, 대학 등 상급학교 진학시 입학사정관 활용자료로 제공될 예정인데, 학교밖 체험활동의 경우 내용·효과가 검증된 우수 프로그램에 한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인정, 기록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의 연계하게 되면 상호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